

○ 마음을 맑히는 나날을

우리는 '오늘' 이라는 날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.
다양해지고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 속에서,
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흐름에 휩쓸려 버리는 미숙함이
우리에게는 있다.

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가르침으로 돌아간다.
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아버지신님의 뜻을 찾으며,
스스로를 가르침에 맞추어 간다.
우리는 오늘을 '신한줄기' 로 살아가고자 한다.

우리는 '오늘' 이라는 날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.
세상에 눈을 돌려보면,
신상과 사정으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형제들이 있다.
그렇기에 우리는 계속 묻는다.
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.
손을 내밀고 곁에서 함께 한다.
수호 받기를 기원함과 동시에 아버지신님의 뜻을 전한다.
우리는 오늘을 '구제한줄기' 로 살아가고자 한다.

우리는 오늘도 터전에 마음을 두고,
동료들과 함께 세계 구제를 향한 걸음을 나아간다.

앞으로 나아갈 곳은 세계.
뒤에서 밀어주는 힘은 아버지신님과 교조님.

우리는 살아간다. 마음을 맑히는 나날을.

활동 목표

- 한 사람이 한 명의 구제 대상을 만들자
- 가르침을 접할 기회를 만들자
- 히노끼싱을 실천하자

중점 항목

제100회 천리교 청년회 총회에 회원 결집